

감사 때마다 같은 지적 '이제 그만'

광주 북구, 행정감사 사례집 발간...횟수따라 '★' 표시 실무자 업무 지침서 활용...6월부터 인터넷 열람서비스

건설폐기물 처리 감독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절차 부적정,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소홀... 감사 때마다 단골로 지적받는 행정업무들이다.

5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최근 감사 지적 행정업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유형별로 알아보는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2015~2016년 2년간 구정은 영 전반기에 걸쳐 시행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처분 결과를 분석, 지적 사례를 분야별·유형별로 정리해 직원들 업무연선에 활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잘못된 업무 관행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결린 것 다시는 걸리지 말자'는 의미다.

사례집은 유형별로 '★'를 표시한 것이 눈에 띈다. 지적된 사례의 반복정도에 따라 ★의 개수가 늘어난다. ★이 1개(★)면 1회 지적됐고, ★이 5개(★★★★★)면 5회 이상 지적이 반복됐다는 뜻이다. 감사에서 지적된 단골 사례들인 셈이다.

사례집에는 12개 유형에서 ★ 5개가 표시됐다. 동주민센터 업무 중 ▲주민등록 정정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소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소홀 ▲인감증명서 임장 기재사항 확인 소홀 등 주민등록·민원분야 3가지 사례가 ★5개를 받았다.

사회복지분야도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 구정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 퇴직직급금 관리 소홀이, 동주민센터에서는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소홀 ▲무료종량제 봉투 지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정산 부적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감독 부적정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절차 부적정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6급이하 직원 사무인계인수 미이행 ▲자치센터 운영실적 자치위원회 심의 미이행 등도 ★5개를 받았다.

★ 4개를 단 것도 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신용카드 보관책임자 미변경, 보안업무 처리 소홀 등 8가지 유형이나 됐다.

사례집은 지적사항의 근거인 관계 법규나 지침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도 빼놓지 않았다.

북구청 감사팀 관계자는 "지적 회수를 표시해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한편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체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사례집을 배포해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 사전예방 감사의 효과를 높이고 직무 교재 및 실무자의 업무처리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손쉽게 검색 가능한 웹(Web)기반 서비스 형태의 '감사사례 원문 열람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9개 분야로 분류한 감사사례를 원문형식으로 자료화해 오는 6월부터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주재야별 검색 기능을 추가해 직원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검색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6 해질 18:32
달돋이 12:19 달질 01:40

겨울의 시샘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 춥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1/7	보성	0/8
목포	1/6	순천	2/8
여수	3/8	영광	-1/5
나주	-1/7	진도	3/4
완도	3/8	전주	-1/7
구례	0/7	군산	-1/6
강진	1/8	남원	-1/7
해남	0/7	축산도	2/5
장성	0/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면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5~2.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1.0~2.0
	면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1.5~2.5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2.0~3.0

생활지수

보통	+
높음	+
감기	+
관심	+
체감온도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30	08:10
		13:19	20:19
여수		08:59	02:54
		21:38	15:11

주간 날씨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	☀	☀	☀	☀	☀	☀
-3/2	0/9	-1/11	0/12	1/14	2/14	2/14

"나눔 위해 뛰어오"

광주마라톤클럽 달린만큼 기부 난치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

지역 마라톤클럽이 3·1절 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희귀 난치성 아이들을 위한 기부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기부로 이어지는 마라톤 대회 문화가 조성된다면 점에

서 의미있는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광주마라톤클럽'은 5일 열린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앞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하고 희귀 난치성 어린이를 위한 달리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3·1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회원들이 달린 거리 만큼 기부금을 마련, 희귀 난치성 아이들을 위해 내놓기로 했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면서 1m당 1원씩, 400만원을 적립해 기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회원들은 좋은 취지에 선뜻 참여 의사를 밝혔고 15명이 풀코스(42.195km)에 도전, 결승선을 통과했다. 13명의 회원들도 하프코스(21.1km)를 거뜬히 완주, 9만7192원을 적립하는 데 성공했다. 광주마라톤클럽은 앞으로 74명이 풀코스를 완주하면 목표액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석 광주마라톤클럽 회장은 "회원들이 건강을 챙기면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다른 마라톤 클럽에도 나눔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형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 본부 나눔사업팀장은 "마라톤을 계기로 건강을 챙기면서 기부도 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난치병 극복 함께해요"

광주마라톤클럽은 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 앞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고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희귀 난치성 병에 걸린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달리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마음껏 달린 마라톤...광주경찰 고마워요"

3000여 마라토너들 '무사고 대회' 감사 인사

"불날 광주에서 열린 3·1 마라톤, 광주경찰 덕분에 맘 놓고 달릴 수 있었어요. 광주경찰 고마워요"

5일 화창한 날씨 속에 치러진 제 52회 3·1절 전국 마라톤의 무사고 성공 개최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 통제에 힘써준 광주경찰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 출발점을 나서 도심 코스를 질

주한 3000여명의 마라토너들은 새벽부터 출동해 교통통제와 대회운영에 도움을 준 광주경찰을 한목소리로 칭찬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한 동·서·남부경찰은 총 138명의 경찰관과 순찰차 및 오토바이 각 10대씩을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마라톤 코스에 투입, 경기가 마무리된 오후 2시까지 마라토너들의 안전을 살폈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가 달려온 지난 반세기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42.195km의 전 구간을 묵묵히 지켜온 것처럼 이날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마라토너들의 안전을 위해 힘썼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 마라토너가 함께하는 3·1 마라톤 대회의 안전은 광주경찰이 항상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기온 '뚝'...이번주 꽃샘추위

완연한 봄 기운을 보인 주말과 달리 이번 주부터는 광주·전남지역에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지만 담양과 영광, 곡성 등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7일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1도, 낮 최고기온은 4도~7도로 예보됐다. 서해안 지역은 흐리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에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강진 공사현장 흠더미 매몰 근로자 구조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빈번...지나해 광주·전남 28명 사망

지난 3일 오전 11시20분께 강진군 칠량면 한 하수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1명이 흠이 무너져 파묻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를 당한 A씨는 2.5m 깊이 구덩이에서 작업을 끝내고 지상으로 올라오다 무너져 내린 흠더미에 하체가 깔렸다. A씨는 긴급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날씨가 풀려 땅이 녹으면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공사현장을 비롯한 취약지역에 대해 관리강

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해빙기(2월20일~3월10일)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28명이 숨졌다. 지난 2015년 사고로 숨진 31명에 비해서는 3명이 감소했다.

사고유형별로는 공사현장에서 떨어져서 나뉘어 숨진 사례가 가장 많았고, 끼이거나 깔리는 사고가 뒤를 이었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빙기엔 겨우내 얼었던 흠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고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김현영기자 young@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시장의 대전망!

흔들스러운 경제상황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시장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등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과 분석 개발은 넘쳐나는데..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은 어디일까? 토지시장에 대박이 있다! 미래가치가 높은 신개발지를 찾아라!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강의내용

- ✓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
-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 수도권 및 지방의 최고 노른자위를 찾아라!
- ✓ 개발지에서 성공투자하는 법!
- ✓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행복한 부동산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하이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2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 일시 : 3월 8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